

모두를 위한 문화, 함께 누리는 예술


#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

2025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관객 참여형 스토리텔링 콘서트

주최/주관 (재)영월문화관광재단

후 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협 력 영월군장애인협회, 살롱더스트링



라컨투어는 모든 사람이 공연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형·동행형 공연 방식이다.  
영월에서 라컨투어가 특별한 이유는,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단종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장릉,  
동강과 마을 골목,  
사람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들은  
이미 이야기를 품고 있다.  
라컨투어는 이 공간을 단지 바라보게 하지 않고,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영월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장애인과 문화 접근이 어려운 주민도 적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동시에 관광도시이자  
공연·전시·사진·영화가 살아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라컨투어는 이 두 얼굴을 하나로 잇는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다.  
이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무장애 공연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2025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라컨투어 콘서트 '피어나는 결'>

피어나는 결은 영월의 단종이야기를 모티브로  
클래식과 국악의 크로스오버 연극을 볼 수 있는 융합형 공연입니다.

공 연 명 라컨투어 콘서트 '피어나는 결'

공연일시 2025. 11. 21.(금) 10시 / 14시

공연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장 르 음악극,클래식,국악 융합

대 상 8세 이상 관람 가능

관 람 료 무료

2025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관객 참여형 스토리텔링 콘서트

영월  
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무료공연  
예매 및 문의  
033-375-6385

2025.  
11.21.(금)  
1회 10:00  
2회 14:00

공연정보  
바로가기

음악에 이야기를 더한  
라컨투어 콘서트  
삶의 시련을 넘어 함께  
마음이 피어나는 무장애 콘서트

피어나는 결

영월문화예술회관 | 영월시청 | salin@saling | #영월 |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

영월문화관광재단


공연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소리로만 듣는 것도 아니다.  
공연은 공간을 걷고, 시간을 느끼고,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이다.  
무장에 문화향유 공연 '라컨투어(La Contour)'는  
바로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누가 이 무대를 누릴 수 있는가?"  
해설과 촉각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만나고,  
공간의 움직임과 리듬을 통해 공연을 느끼며,  
이동이 어려운 관객도 무대의 일부로 함께 이동한다.  
관객은 '객석에 앉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연 속을 함께 걷는 존재가 된다.





라컨투어콘서트 '피어나는결' 中 <개화-Blossom>

무엇도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면,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닐 터.... 나는 살아도 죽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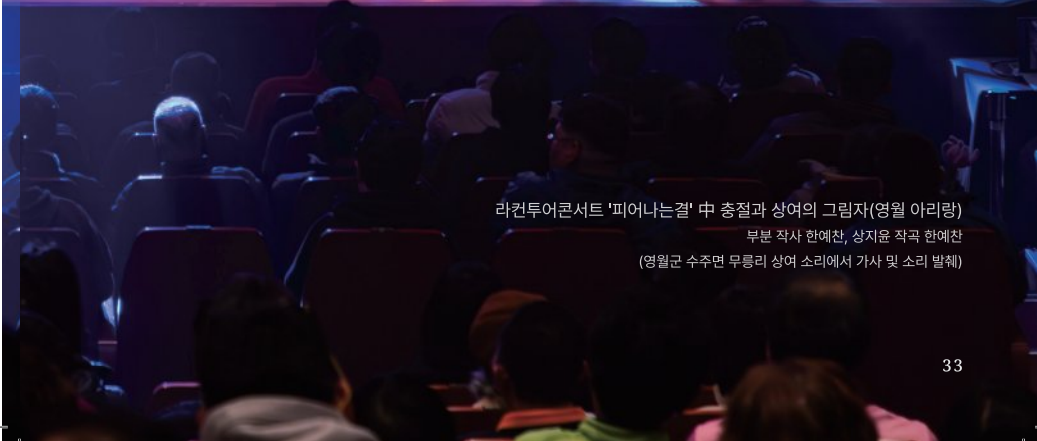
라컨투어는 관객에게 도움을 주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누군가는 설명을 듣고,  
누군가는 손으로 만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만난다.  
현장에서 만난 관객들은  
“처음으로 공연을 혼자자 아니라 함께 봤다”고 말한다.  
보조자가 아닌,  
‘관객’으로서 공연을 경험했다는 감각은  
무엇보다 큰 변화다.  
공연을 본다는 것은,  
그 순간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컨투어는 영월 문화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콘텐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넓히는 방식으로 문화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다.  
무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도시의 품을 넓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공연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영월의 라컨투어는 묻는다.  
“당신은 이 공연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은가?”  
그리고 대답한다.  
“어떤 방식이든, 당신의 방식이면 된다.”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걸기 어려워도,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월이 선택한 문화의 방향이다.



라컨투어콘서트 '피어나는결' 중 총절과 상여의 그림자(영월 아리랑)

부분 작사 한예찬, 상지윤 작곡 한예찬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상여 소리에서 가사 및 소리 발췌)





“이 무대는 영월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청령포 소나무 향이 가득합니다.  
단종이 걸었던 숲길의 바람이 우리 곁으로 스며듭니다.”

## 연출가 김일현

2025 스무살 단오 심청이의 선물 :사랑  
국악유람 정씨처녀의 소리  
강릉 국가유산 아행 '설화로 듣는 FUN STORY'  
강릉오죽헌 풍류야 '국악을 합하게' 기획  
2024 국립국악원 국악아티스트랩 꽃화  
강릉단오제 '숫아라 단오' 음악감독 등



안녕하세요. 저는 '라퀸투어 콘서트 <피어나는 결>'의 연출을 맡은 김일현입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무대를 바라보는 감상이 아니라, 관객 여러분이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연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공연장을 하나의 공간으로만 두기보다, 관객 각자가 선택한 라퀸투어 A와 B, 두 개의 라디오 채널을 통해 해설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감정을 따라가며 공연을 완성해 가는 구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 한 분 한 분의 집중과 참여가 공연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영월의 역사이자 우리 모두의 기억인 단종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오늘날의 언어로 관객 여러분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로만 존재하던 단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느꼈을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감정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단종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 감정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피어나는 결>이라는 제목처럼,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감정과 생각, 기억의 결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순간을 담고자 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관객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각자의 감정이 모여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대는 연출자나 배우만의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완성된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단종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관객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역사와 현재,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야기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가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어나는 결>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남아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컨투어 A

변선희



라컨투어 A를 받은 변선희입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인데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사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또 할 때, 관객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각자의 방식으로 공연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뿌듯하고 또 행복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라컨투어 B

박희진



라컨투어 B를 맡은 박희진입니다.  
관객들과 공연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는게 사실  
흔치 않은데요, 공연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니까  
따뜻한 그런 시선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  
서 밤에 잠에 들기 전 책을 읽는 듯한 느낌도 받  
았고요.  
그런 포근한 공연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땅에 남은 것은  
피어나는 기억입니다.”

**INTERVIEW.**

**외국인 관람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기억 속에서 자연속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속에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단종께서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분을 떠올리며 울고 기억하는 순간마다 기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거죠. 꽃들 속에서 또 그 기억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공연 정말 잘했습니다.

**청각장애인 관람객**

(수화 번역)오늘 공연봐서 너무 좋았는데, 특히 그 남자랑 여자랑 헤어지는 장면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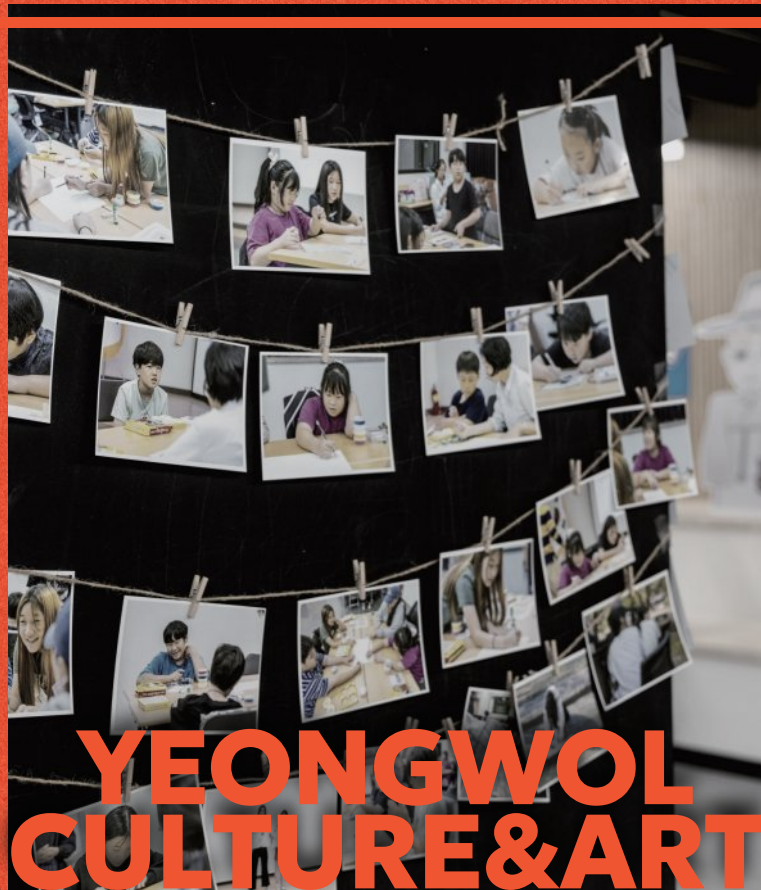
**관람객**

가끔씩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게 너무 행복하고, 자주 좀 공연 해주세요.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 장 하 다 \* 만 나 다 \* 있 다 \* 확 장 하 다

2025

문화, 예월 — 그날의 온기



JAN 01 - DEC 31

살이 예술이 되는 순간

영 월 × 문 화 × 예 술 × 사 람

##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영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교육을 제공하여 음악적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성장시키는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초·중·고등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기초 음악 이론부터 악기별 개별 지도, 합주 수업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강사진이 주 1회 정기 연습을 지도하고 단원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듣고 박자를 맞추며 함께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한다. 각기 다른 속도와 개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음악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은 곧 배려와 소통의 배움이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진다. 정기연주회와 교류공연,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무대는 아이들에게 실력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주지만, 그 무대를 마주한 순간의 떨림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성취감으로 남는다. 객석의 박수는 단순한 환호를 넘어 “함께 했다”는 공동의 기억이 되고, 그 경험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 깊이 새겨진다.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예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며, 타 지역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문화적 시야를 열어가고 있다. 음악을 매개로 개인의 성장과 지역의 문화를 함께 키워가는, 살아 있는 청소년 예술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Yeongwol  
Youth Orchestra



영원청소년오케스트라는 합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악기별·파트별 집중 연습을 운영하고 있다. 파트연습은 각 악기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음정·리듬·보잉·호흡을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단원들은 자신의 파트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합주에서 필요한 균형과 조화를 준비한다.

1st 바이올린(유예림, 유하나, 윤혜라, 하수연, 김지우, 장이현)은 주선율을 이끄는 파트로서 정확한 음정과 표현력을 중심으로 연습하며 곡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다진다.

2nd 바이올린(유예성, 이승민, 심현우, 윤채아, 이민음)은 화성과 리듬을 탄탄히 받쳐주며 1st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

3rd 바이올린(박주원, 윤서윤, 김지영, 윤다은, 이태린, 김다은)은 중간 성부의 연결과 리듬 보강을 통해 전체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연습을 진행한다.

비올라(김슬은, 이정은, 김지우, 홍한빈, 윤나영)는 오케스트라의 중심을 잡는 중음역 파트로서 안정적인 음색과 화성 진행을 세밀하게 다듬는다.

첼로(김지서, 이동민, 고은찬, 박나울)와 더블베이스(정그루, 권은수, 윤시우)는 저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파트로, 리듬의 중심과 곡의 무게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목관 파트인 플루트(유승연, 이가은, 홍윤아, 정의홍), 오보에(이진우, 남경훈), 클라리넷(최강주, 한라은, 박민율, 박슬아)은 음색의 조화와 호흡을 맞추며 선율의 색채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금관 파트인 트럼펫(지유람, 고은겸, 노영진, 김민성)과 호른(김지희, 이하준)은 힘 있고 안정된 음량과 정확한 음정을 중심으로 연습하며, 곡의 클라이맥스를 단단히 받쳐준다.

마지막으로 타악기(이하늘, 권은성, 노찬울, 이태성, 남재훈)는 리듬의 흐름과 곡의 분위기를 조율하며 전체 연주의 긴장감과 에너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파트연습은 각자의 소리를 깊이 있게 다듬는 시간이며, 결국 모든 파트가 하나로 모여 더 완성도 높은 합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Q.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악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윤아(플루트)** 안녕하세요. 플루트 파트를 하고 있는 홍윤아입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 악기 중에서 플루트는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나 공연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권은수(더블베이스)** 처음에는 오케스트라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무슨 악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선택하지 않는 더블 베이스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별로 연습을 하면서 선생님, 친구들과 서로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특히 재미를 느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Q.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지유람(트럼펫)** 파트 연습이 끝나고 합주를 할 때 처음에는 금방 지쳐서 소리가 잘 안 났는데,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 점점 더 오래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준비하고 정기 무대에 올랐을 때 많은 분들께 박수를 받았는데, 공연이 끝난 후 "아, 나 정말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박민율(클라리넷)** 영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다양한 무대에서 보고 싶습니다. 클라리넷의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단원이 되고 싶습니다.

**Q. 학생들을 지도하며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민경수(2바이올린 강사)** 음악이라는 게 감정적 영향이 참 있구나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하면서 보람도 좀 느끼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릴 때를 떠올리면 아 오케스트라 재밌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성진(호른 강사)** 저의 전문적인 지식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음악을 하는 게 저의 기초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만난 친구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기를 계속 와야겠다고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주연습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 대연습실



**Q. 합주연습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하수연(바이올린)** 합주를 하면 떨리긴 하지만, 다 같이 연주하니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 파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Q. 1년 동안 준비한 곡을 합주해보니 어떤 점이 새롭게 느껴졌나요?**

**박주원(바이올린)** 1년 동안 연습했던 곡을 다 같이 맞춰보니깐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합주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보고, 긴장되지만 공연 때는 더 자신 있게 연주하고 싶어요.

**Q. 합주에서 오보에 파트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진우(오보에)** 합주를 하면 긴장감이 확 올라오긴 하는데, 그만큼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소리가 다른 악기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속 들어보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노영진(트럼펫)**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불고있는 노영진입니다. 지금 합주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혼자 연습할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연습해 온 만큼 마지막 공연을 잘 준비하고 싶고, 오늘 합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좋은 연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Q. 합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정은(비올라)** 다 같이 소리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서로의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함께 만든 합주가 잘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이 합주한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구(지휘자)

Q1. 오늘 청량리역 버스킹 공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오늘 KTX 개통 21주년을 맞아 청량리역 로비에서 공연하게 되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연주하다 보니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관객들의 반응과 박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더욱 즐겁고 힘 있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Q2. 이번 공연이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에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A.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오케스트라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Q3.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음악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찬율(타악기)

Q1. 오늘 청량리역 공연을 해보니 어떤 느낌이었나요?

A. 평소에는 지역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연주하니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Q2.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처음에는 많이 떨렸지만, 연주가 시작되면서 점점 긴장이 풀렸고 더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 정미루(타악기)

Q1. 새로운 장소에서 공연해보니 어땠나요?

A. 청량리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공연하니 신비롭고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Q2. 이번 공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떨리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재미있었고,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x 꿈의 오케스트라 제천 교류캠프

2025.08.14.목.-16.토. 동강시스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2025.04.18.금. 청량리 역

### 김석구(지휘자)

Q1. 오늘 청량리역 버스킹 공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오늘 KTX 개통 21주년을 맞아 청량리역 로비에서 공연하게 되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연주하다 보니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관객들의 반응과 박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더욱 즐겁고 힘 있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Q2. 이번 공연이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에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A.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오케스트라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Q3.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음악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찬울(타악기)

Q1. 오늘 청량리역 공연을 해보니 어떤 느낌이었나요?

A. 평소에는 지역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연주하니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Q2.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처음에는 많이 떨렸지만, 연주가 시작되면서 점점 긴장이 풀렸고 더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 정미루(타악기)

Q1. 새로운 장소에서 공연해보니 어땠나요?

A. 청량리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공연하니 신비롭고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Q2. 이번 공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떨리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재미있었고,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Bizet L. Anderson N. Rosauro 조동화 · 윤락준 P. I. Tchaikovsky J. Strauss L.V. Beethoven

## 2025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 Tutti ; 함께

정규수업 32회(2025.02.-12.)

정기연주회 1회(2025.11.28.)

교류행사 4건(5회)

1. 음악으로 이어진 문화공동체[이음지음]
  -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X 경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 교류캠프(2025.02.10.-12.)
2. 달과 하늘의 하모니 : Tutti
  -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X 꿈의 오케스트라'제전' 교류캠프(2025.08.14.-16.)
  -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X 꿈의 오케스트라'제전' 교류공연(2025.09.06.)
3. 제천청소년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교류공연[베토벤, 열정과 선율](2025.11.22.)
4. 제9회 영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Tutti : 함께](2025.11.28.)

관내 행사 3건

1.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2025.05.03.)
2. 2025년 동서강정원 연당원 봄 가든쇼(2025.05.23.)
3. 2025년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개원식(2025.09.25.)

관의 행사 2건

1. 찾아가는 음악회 : 청량리역(2025.04.18.)
2.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제 오산(2025.08.30.)

수상내역 1건

1.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제 베토벤열정상 수상(2025.08.30.)



영월문화관 3층 공연장

Vcllo I  
최재성 이준민 남건우 윤재하 이진원

Vcllo II  
김승현 이형은 김지우 홍찬민 윤나영

Double bass  
장그루 최은수 윤시우

Cello  
이민우 남정훈

Trumpet  
지우형 고현범 노영진 김민성

Baritone  
이태환 김민성 노현을 이태성 남재호

3-375-6383

영월문화관장재단

2025  
년월청소년  
노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Tutti;



문화, 예술 성장하다

## 꿈나무교실

2025.02 ~11

30회 운영

주최 (재)국립발레단

주관 (재)영월문화관광재단

### 작은 발걸음이 무대가 되기까지,

무대 위의 찰나를 꿈꾸는 시간은 언제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꿈나무 교실>은 국립발레단과 함께한 발레 프로그램으로, (재)국립발레단과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 손을 맞잡고 미래의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를 위한 청소년 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하며 문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과 공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예술을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기획되었다.

<꿈나무 교실>은 발레를 단순한 체험 활동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꾸준한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로서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육성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무대와 열거 느껴졌던 발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한가운데로 다가왔고,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 발레를 단순한 체험 활동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꾸준한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로서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육성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무대와 멀게 느껴졌던 발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한가운데로 다가왔고,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30회의 정규 발레 수업으로 구성되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했다. 첫 수업에서 아이들은 발레 슈즈를 신는 법과 바른 자세를 배우며 몸의 감각을 깨웠다. 서툰 동작과 낯선 용어 앞에서의 긴장은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어 갔다. 수업은 기술 습득을 넘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여자들은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를 느끼며, 발레가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닌 표현의 예술임을 체감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자세를 점검하고, 강사의 지도를 통해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은 인내와 집중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만큼 작은 변화와 성장이 뚜렷이 드러났고, 아이들은 자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선과 움직임에 점차 익숙해졌다.

국립발레단과 함께한 수업은 전문 예술단체의 노하우와 교육 철학을 현장에 고스란히 전했다. 강사의 말 한마디, 시범 동작 하나하나에 발레가 지닌 엄격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무대를 향한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예술가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30회의 수업 끝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공유하는 결과발표회가 열렸다. 무대 위에 선 아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처음 발레를 접했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몸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결과발표회는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연습과 성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관객으로 함께한 가족과 지역민들은 아이들의 움직임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무대 위의 짧은 순간 뒤에는 수십 차례의 연습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시간이 있었음을 모두가 공감했다. 발표회는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성취의 기억으로, 지역에는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 발끝으로 피어나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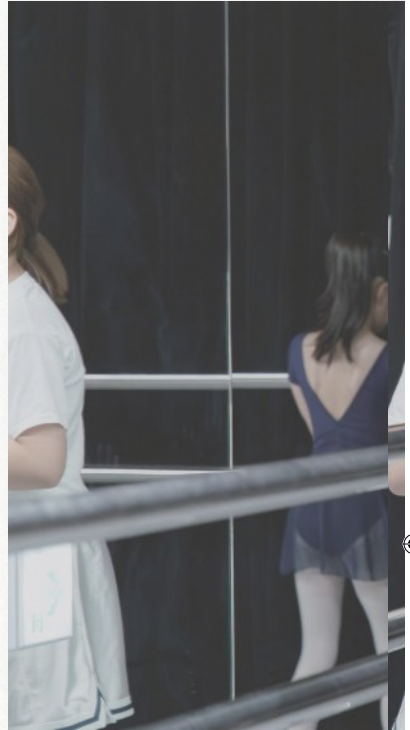
처음 발레를 배운다는 것.  
전혀 해보지 않은 몸짓, 익숙하지 않은 음악,  
그리고 거울 속 낯선 나의 모습.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에게 어울릴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움직임으로 쌓였습니다.

국립발레단 발레리나와 함께한 10명의 아이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동작들, 조심스레 모은 손끝과 떨리는 발끝에서  
조금씩 피어난 자신감과 설렘은 결국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 위에서  
빛났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 발레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  
을 배우며  
무대라는 공간에서 존중과 성취를 경험하도록 하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예술은 아이의 마음에 심는 하나의 씨앗.  
그 씨앗은 무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피어납니다.



## 여섯 달간의 여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b>발레 첫걸음</b>	<b>기본기 익히기</b>	<b>짧은 안무 시작</b>	<b>무대 이해하기</b>	<b>리허설 집중</b>	<b>공연발표회</b>
지세, 용어, 스트레칭	포지션, 발동작 중심	루틴연습, 파트너 동작	동선, 그룹협동연습	의상 착용, 리허설	최종공연, 가족 초청



#### 아이들의 목소리

##### Q. 발레를 처음 했을 때 어땠어?

"긴장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친구들과 함께라서 안 무서웠어요."

"발레는 나를 표현하는 거 같아요."

"처음엔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음악 들으면 몸이 먼저 움직여요.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엄마가 '너 진짜 멋있다'고 했어요!"

##### Q. 가장 좋아하는 동작은?

"발동작 중에 \*번 동작이요!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기분 좋아요. 우아해지는 기분이예요"

##### Q. 리허설엔 어땠어?

"리허설이 진짜 무대 같았어요"

"한번 무대 연습했는데,

진짜 공연하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더 잘하고 싶어요."

"몸을 통한 감정 표현, 음악과의 교감,  
자신감을 키우는 무대 경험, 집중력 & 창의력 향상  
발레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입니다."